

- 주요 뉴스: 미국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년래 최고치 연준의 통화긴축 보다 강화될 가능성
 - 애틀랜타 연은 총재, 7월 FOMC에서의 1.0%p 금리인상 방안 검토
 - 중국 6월 수출 증가율, 5개월래 최고 수준. 향후 전망은 대외여건 악화로 불투명
 - 캐나다 중앙은행, 정책금리 2.5%로 1.0%p 인상. 인플레이션 대응이 목적
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6월 소비자물가의 급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악화
 주가 하락[-0.5%], 달러화 약보합[-0.04%], 금리 하락[-4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강력한 통화긴축 지속 가능성 등이 반영. 장중 낙폭은 축소
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사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1.0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그 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증가 등이 영향
 유로화가치는 0.2% 상승, 엔화는 0.4% 절하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성장을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
 독일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1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04.1원, -2.8원) 0.2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7/13일	7/12일	전일대비			7/13일	7/1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01.8	3,818.8	-0.45%	국채 금리 10y	미국	2.93%	2.97%	-4bp
	유럽	412.81	417.04	-1.01%		독일	1.15%	1.13%	1bp
	중국	3,284.3	3,281.5	0.09%	CDS 5y	한국	53bp	53bp	0bp
	일본	26,479	26,337	0.54%		중국	85bp	83bp	2bp
	한국	2,328.6	2,317.8	0.47%	위험 지표	EMBI+	-	480	-
환율	달러지수	108.02	108.07	-0.04%		VIX	26.82	27.29	-1.72%
	유로화	1.0059	1.0037	0.22%		WTI유	96.30	95.84	0.48%
	엔화	137.39	136.87	-0.38%	원자재	구리	332.6	329.7	0.88%
	위안화	6.7187	6.7249	0.09%		금	1,735.5	1,726.0	0.55%
	원화	1,306.9	1,312.1	0.40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40년래 최고치. 연준의 통화긴축 보다 강화될 가능성

- 노동부에 따르면, 6월 소비자물가(CPI)는 전년동월비 9.1% 올라 예상치(8.8%) 넘어서며 198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. 근원 CPI의 연간 상승률은 5.9%로 전월(6.0%) 대비 둔화. 하지만 월간 상승률은 0.7%로 전월(0.6%) 대비 상승
- 세부항목 기준으로는 에너지(41.6%) 부문이 매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, 헤드라인 CPI 상승분에서 기여도가 절반을 차지. 이 외에도 경제 전반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고, 서비스 부문에서 주거비 상승률(5.6%)이 1991년 2월 이후 최고치 기록
- BMO Capital Market의 Sal Guatieri는 7월 휘발유 가격 하락과 일부 소매점의 할인판매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및 임대료 등 근원 CPI 항목의 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강하기 때문에, 당분간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
- FS Investment의 Lara Rhame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임금, 저축, 기업이익 등 경제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. Barclays의 Michael Pond는 근원 CPI의 연간 상승률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전혀 위로가 되지 않으며,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이 기존 예상보다 더욱 매파적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전망
- 이를 반영하듯 금리인상과 관계가 깊은 2년물(3.15% +11bp) 국채금리는 상승. 반면 10년물(2.93% -4bp) 금리는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. 한편 CME의 FedWatch Tool에서 7월 FOMC에서의 1.0%p 금리인상 가능성이 급등(7.6%→78%)했고, 9월 FOMC의 경우 0.75%p 인상 가능성(70.2%)이 높다고 분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애틀랜타 연은 총재, 7월 FOMC에서의 1.0%p 금리인상 방안 검토

- 보스틱 총재는 6월 소비자물가 결과로 연준의 통화위원들이 1.0%p 금리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. 이번 결과를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,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첨언
- 한편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, 지역 연은들은 최근 경제가 완만한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.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이 수요감소 및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

■ 미국 에너지장관, 주요 광물의 무기화를 우려

- 그랜홀름 장관은 주요 광물 가격이 특정 국가의 인위적 결정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. 국가 안보 및 건전성 측면에서 공급망의 다각화를 통해 탄소 제로 목표 달성이 가능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 호주와 강력한 우호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첨언

■ 독일 재무차관, 러시아산 석탄 및 석유 수입을 각각 8/1일, 12/31일 중단

- 요르그 쿠키스 차관은 현재 전체 석탄 및 석유 수입에서 비중이 40%에 이르는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 수입을 해당 일정에 맞춰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. 다만 러시아산 가스의 경우 아직 대체 공급원 마련이 어렵다고 부연
- 독일 금융감독청의 마크 브랜스 청장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련 갈등으로 당장은 금융안정이 위협을 받지 않지만, 3~6개월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

■ 중국 6월 수출 증가율, 5개월래 최고 수준. 향후 전망은 대외여건 악화로 불투명

-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7.9% 늘어 전월(16.9%) 및 예상치(12.0%) 상회. 이번 결과는 항만 운영의 정상화 등 경제 봉쇄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회복 등에 기인. 특히 30.5% 늘어난 자동차 수출 등이 크게 기여
-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심화 및 정책금리 인상, 최근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재확산 가능성 등은 향후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

■ 중국 인민은행, 은행 간 자금시장의 유동성은 충분. 추가 완화에 신중하다는 신호 발신

- 조우 란 통화정책국장은 7일물 역레포 금리가 1.6%로 인민은행이 제공하는 7일물 대출금리 2.1%보다 낮다고 설명. Standard Chartered의 Ding Shuang는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 혹은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

■ 캐나다 중앙은행, 정책금리 2.5%로 1.0%p 인상. 인플레이션 대응이 목적

- 통화정책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결정하며 4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. G7 가운데 1.0%p 인상에 나선 것은 캐나다가 처음. 성명서를 통해 물가안정 의지를 강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7/14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월러 이사 강연, 미국 7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6월 생산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세계경제의 지정학적 양분화, 각국의 국익우선으로 가능성은 낮은 편 - Financial Times**
(No, the global economy is not breaking into geopolitical blocs)
 -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각에서 세계화가 훼손되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양분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. 이는 신흥국들이 미국과 동맹국 또는 중국 주도의 경제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의미
 - 하지만 브라질과 인도의 경우 미국 및 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중국, 러시아 등과도 대규모 무역관계를 지속. 여타 신흥국도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고 동시에, 중국과의 공급망도 유지. 아직 완전히 배타적인 경제 블록 형성은 어려운 상황
- **ECB, 유로화 약세 방어위해 보다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요구 - 블룸버그**
(The Euro's Drop Below \$1 Means a More Hawkish ECB)
 - 유럽의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유로화와 미국 달러화의 등가(parity) 현상이 발생. 유로화 약세는 수출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큰 편. 이에 ECB는 금리인상을 통해 추가적인 유로화 약세 방어가 필요
 - 현재 ECB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.25%p의 금리인상을 예고. 그러나 유럽경제는 러시아의 가스공급 전면 중단 우려에 환율불안까지 발생. 이러한 여건에서 ECB는 7월 0.5%p 인상 등의 보다 강력한 통화긴축 조치가 적절한 대응이 될 전망
- **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, 일부 지표는 점진적인 완화 신호를 발신 - 블룸버그**
(Inflation Alarm Bells Are Actually Getting Softer)
- **스리랑카의 채무조정 문제와 부채위기, 신흥국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 - Financial Times**
(Sri Lanka's woes are a warning to other developing nations)
- **미국의 고물가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, 재정부담 급증 등 막대한 비용 초래 - 블룸버그**
(The Cost of Taming Inflation Will Be Exorbitant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